

“광주 aT비축기지 괴한 침입...” 복합테러 대응 훈련

남구 주최...8개 기관 100여명 참여

드론 공격·인명 피해 가정 시나리오

최근 폭발 협박 소동...실전 대비 만전

“aT비축기지에 괴한 2명이 침입, 비축미를 탈취하고 방화를 시도합니다.”

19일 오후 광주 남구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비축기지에서 괴한 침입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군, 소방 인력 등이 화기를 장악한 채 진입로를 따라 건물로 접근, 테러범 진압에 나섰다.

이는 남구청이 주최·주관한 2025년 을지연습의 하나로 ‘국가중요시설 복합테러 합동대응 훈련’이다.

해당 훈련은 복합적 안보 위협에 대응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통합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남부경찰서, 남부소방서, 제31사단 503여단 1대대, 한국전력공사, KT, 광주시 드론운용단 등 8개 기관 100여명이 무장 괴한 2명이 비축기지에 침입해 경비원을 제압하고 비축미를 탈취한 뒤 방화를 시도하는 상황을 가정해 훈련에 돌입했다.



2025년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가중요시설 복합테러 합동대응 훈련’이 19일 오후 광주 남구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비축기지에서 열렸다. 사진은 제31사단 503여단 1대대와 남부경찰서 초동대응팀이 테러범 제압에 나서는 모습. /주성학 기자

괴한 침입 신고를 접수한 남부경찰서 초동대응팀과 군 병력이 건물로 진입했으나, 폭발물 설치 감지됐다는 안내 방송이 이어졌다.

경찰은 곧바로 시민 대피를 유도하고 군 병력은 내부 수색을 진행했다. 잠시 후 괴한들이 건물 밖

으로 끌려나오면서 1차 상황은 마무리됐다.

이후 폭발물을 장악한 미확인 드론이 상공에 출현했다는 추가 안내가 나오자 경찰관들은 즉시 건물의 남은 인원들을 대피시켰다.

곧 폭발 상황이 전개되며 옥상에서 노랑·분홍

연기가 치솟자 현장은 일순간 긴장감에 휩싸였고, 군 병력과 경찰은 땅바닥에 엎드려 위협을 피하며 대응 태세를 이어갔다.

뒤이어 소방 당국은 펌프차·구급차 등을 동원해 화재 진압과 동시에 구조 활동을 펼쳤고, 한

전과 KT는 전력·통신망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 최종적으로 비축기지 창고 일부가 붕괴되고 식량의 30%가 손실됐다.

이번 훈련은 최근 발생한 실제 사건과 맞물려 현실성이 더했다. 앞서 지난 11일 “광주 서구 롯데백화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롯데·신세계백화점 2곳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됐다.

경찰 50여명이 투입된 대대적인 수색 끝에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직원 수십 명이 대피하고 개점이 지연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다.

훈련에 참여한 장해민(28·여) 주무관은 “최근 전국 단위에서 폭발물 테러 위협이 잇따르는 가운데 실제처럼 진행된 훈련을 통해 공무원으로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오늘 훈련은 단순한 모의 상황을 넘어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한 준비 태세를 다시 점검하는 자리였다”며 “민·관·군·경 유관기관의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을지연습 기간(18~21일) 동안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소집, 전시 전환 절차, 도상연습 등 다양한 훈련을 병행하고 있다. /주성학 기자

북구 침수 피해 주민들 “단기 수해 대책도 필요”

주민보고회서 불면 등 토로 잇따라

區 “차수벽 설치 지원 신속 추진”

문인 청장 “영산강변 복구 검토”

연이은 ‘괴물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광주 북구 지역 주민들이 중·장기 해법 이전 단기 대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구는 19일 청사 3층 회의실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 사업 및 침수 예방 대책 주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신안동, 중흥동, 운암2동, 건국동, 석곡동, 문화동, 용봉동 등 7곳의 주민 150여명이 참석했다.

북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사항 37종과 침수 예방사업 22개 내용을 안내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서 주민들은 북구의 지원책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단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침수 예방사업 22개 모두가 중·장기 대책인데 따른 것이다.



19일 오전 광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사업 및 침수 예방 대책 주민 보고회에서 문인 청장이 주민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광주북구 제공>

문종준 신안동 수해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주민들은 비만 오면 잠을 자지 못하고 당장 내일 또 쏟아지면 어떻게 해야 할 지 불안해하고 있다”며 “단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북구는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차수벽 설치 지원사업과 영산강변 정비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북구는 연이은 비로 침수 피해를 입은 북구종합운동장과 파크골프장, 드론공원의 복구를 검토 후 시행하기로 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자신의 SNS에 “이들 시설은 2020년에도 침수돼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복구했으나, 불과 5년 만에 동일한 피해가 반복됐다”며 “일시적 복구로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예산의 실효성과 주민 안전, 활용 가치를 종합 고려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복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현재 광주시가 산동고 일원에 추진 중인 영산강 Y벨트사업 ‘익사이팅 조성’ 또한 이상기후로 반복되는 침수 위험을 고려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재영 기자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재심 10월28일 선고

개시 1년9개월만...‘확정형’ 구형

당시 수사감사 “짜맞추기 無” 주장

16년 전 순천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셔 4명이 죽거나 다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의 결론이 개시 결정 1년9개월여 만에 나온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9일 존속살인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된 A(70)씨와 딸 B(41)씨에 대한 재심의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종결에 앞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이 발생했던 2009년 당시 A씨 부녀를 수사했던 검찰 C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C씨는 검찰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정해진 결론에 수사를 짜맞추는 일은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으나 박준영 변호사의 반대 신문 이전에 밝힌 것과 다른 말을 해 재판부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기도 했다.

특히 C씨는 특정 경찰로부터 A씨 부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제보를 받았다고 발언했다가 박 변호사의 추궁에 “여러명에게 들은 것 같다”고 말을 바꾼 신빙성에 의문을 들게 했다.

증인 신문 후 이어진 결심에서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는 재심 전 이들에게 확정된 형량이다.

최후 진술에서 박 변호사는 무죄 선고를 거듭 요청했다.

재판부는 사건 전반에 대한 기록 검토 후 오는 10월28일 선고할 계획이다. /안재영 기자

은인 살인 60대 2심도 ‘징역 35년’

‘있지도 않던 돈’을 훔치기 위해 은인의 집에 침입했다가 살인까지 저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9일 강도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3일 여수에서 B(70대·여)씨의 집에 침입해 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흥기를 휘둘러 죽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도움을 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살인까지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

민간자격증 관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파크골프 모든 것!

실내연습장 완비

지도자 자격증 취득

- 모집기간 : 수시모집(1:1교육)
- 교육접수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 ▶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매주 2회 이상)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접수방법
 - 농협 351-1286-9685-63(국제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 2급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 H.P. 010-9163-7897 Tel. 062-369-0070

파크골프교육 (초보,중급,고급)

- 실내실습장(파크골프 스크린장) 1:1 책임지도(매주 2회 이상)
- 광주교육대학교 시민대학 강좌 개설 - 매주 토요일 09:00-11:30
- 매월1회 이상 파크골프 동호인 동행 전국구장투어



파크골프지도자 1·2급과정 교육 희망자 모집

교육과정			
2급 지도자과정	28만원 자격취득 총비용	실기실습장 이용권 33회 합격시까지	1:1지도 사전예약
1급 지도자과정	36만원 자격취득 총비용	실기실습장 이용권 33회 합격시까지	1:1지도 사전예약
초급완성반과정	12만원	실기실습장 이용권 15회	1:1지도/3회 사전예약
초급원포인트과정	6만원	실기실습장 이용권 6회	1:1지도/2회 사전예약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합격시까지 그 외 비용 일체 없음
※ 접수 즉시 이론교재 및 예상문제지 배송 실기실습/실내실습장 합격시까지 무료교육

교육시간 평일(토) 오전 09시~ 오후 19시까지(일)/휴무

접수문의 T. 062-369-0070 M. 010-9163-7897

접수비 입금계좌 국민은행 772601-01-794141

안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방향